478호:471호.qxp 09. 12. 16 오후 11:08 페이지 5

‘동문기업과 함께 하는 취업페스티벌’ 열려

동문기업 35개 등 총 44개 기업 참가, 현장에서 1백여 명 취업 확정

지난 25일 본교 체육관에서 총동창회가 주최한 ‘경일대학교 동문 기업 초청 취업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동문기업 35개 업체와 일반 지역 기업 9개 업체가 참가했다. 기업을 통한 실질적 고용, 취업정보 제공 및 관련된 교육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문기업과 대학 간의 상호협조 및 산학협력을 통한 상생관계 구축을 목표로 이번 취업박람회를 열었다. 취업 준비생 2천여 명이 참가하였고 참가업체들은 현장에서만 1백여 명을 채용했다.

행사장에는 총 6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었으며 기업별 채용상담과 채용설명회 외에도 취업컨설팅, 경품추첨 행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취업컨설팅 행사는 취업에 필요한 이미지 메이킹, 메이크업, 취업상담 및 입사서류 클리닉과 지문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학습유형검사, 사주로 보는 미래, 미래 탐색 타로, 입사 증명사진 촬영 등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덕록 총동창회장은 “졸업생 5만 명 중 중소기업 CEO가 3천5백 명이나 되는 장점을 가진 대학이고,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이런 모교의 장점을 살려 그동안 동문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후배들 채용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욱 기자 whd191@hanmail.net

동 · 창 · 회 · 소 · 식

전기공학과 동창회 ‘송년의 밤’ 개최

전기공학과 동창회는 12월 5일 오후 7시 대구 동구에 위치한 샹제리제 웨딩홀 대연회실에서 ‘2009년 전기공학과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70여명의 동문들은 2009년 한해 동문간 친목과 화합을 위해 힘쓴 임원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2010년에도 학과와 동창회의 건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로에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 · 문 · 탐 · 방

장영진 동문

이번 호에는 족발집 배달부에서 대형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대학 캠퍼스의 만학도에서 겸임교수로 변신을 거듭하다 최근 “사람이 좋다 삼수가 좋다”라는 자서전으로 세목을 끌고 있는 동문을 소개할까한다. 삼수장어 대표 장영진 동문(경영 · 91졸)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모교에 진학하기까지

▲방앗간 집 5형제의 넷째로 태어나 중학시절 부친을 여의고 형님 손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전문대학 자동차학과를 졸업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다. 당시 시내에서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던 형님께 학비를 얻기 위해 허드렛일을 돕던 것이 졸업 후에도 자연스레 계속됐다. 사람이 서있기도 어려운 협소한 구멍가게를 형님에게 인수받았고 메뉴를 간소화하고 배달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식당다운 면모를 갖춰갔다. 족발에서 순두부집, 돼지고기 구이식당, 생선회집을 거쳐 장어전문점에 이르기까지 음식종류도 바뀌고 규모도 커졌지만 매일아침 영업장의 문을 열며 가지는 열정은 처음의 구멍가게 문을 열 때와 마찬가지인 듯 하다.

△학창시절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면서 생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모교의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사업을 운영하며 칠전팔기 했지만 경영학을 공부한다면 실패를 줄이고 내가 파는 음식이 조금 더 ‘예술적’일 것만 같아서였다. 처음에는 야간 수업을 들었지만, 고객과 상대해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주간 수업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매번 비빔밥만 사주며 접근하던 만학도를 젊은 이들이 자주 가는 맛있는 식당과 술집으로 데리고 다녀준 동기들이 고마워서 수업에 더욱 열심히 참가했다. 지금 생각하면 끊임없이 메뉴를 개발하며 다양한 고객층을 연구하는 것도 대학동기들 때문에 시작된 일인 것 같다. 아무튼 만학도로서 MT나 졸업여행, 축제 등 학생행사에 하나도 빠짐없이 참가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이다. 그것을 시작으로 주독야경에 푹 빠져 경영학으로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으니 대학을 다닌 것은 정말 잘한 일인 듯 하다.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두 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첫째 남 밑에서 먼저 일해 봐야한다. 자본금 마련을 위해서든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해서든 먼저 남 밑에서 일해 볼 것을 권한다. 둘째 먹는 장사부터 하지 말았으면 한다. 내가 겪은 한 음식장사는 어렵고 말리고 싶은 창업아이템이다. 그러나 ‘위대한 것은 폭풍 뒤에 있다’는 성현의 말이 있다. 창업부터 해보고 그 어려움을 뼈에 새길 수 있다면 그 또한 지면으로 선배가 하는 충고보다 나을 수 있다.

△인생의 좌우명이 있다면

▲‘생각이 팔자고 인상이 인생이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생각이나 상상을 언제나 즐겁게 하면 팔자가 바뀐다. 족발집 배달부를 ‘야 족발!’이라고 부른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었다. 내게 돈을 벌어주는 내 직업을 더 간단명료하게 대표해줄 다른 단어가 없다고 생각했다. 남들 돼지고기 한 접시 2천 원 받을 때 1천2백 원 받는다고 누구나 말렸지만 난 안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적게 벌어도 하루 5만 원치만 팔아보는 것을 소원했다. 개업하고 시간이 지나 하루에 돼지 한 마리를 팔게 될 때까지 즐거운 상상은 언제나 내 머리 속에 끊이지 않았다.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질 때마다 실패의 손해도 점점 커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상상을 꾸준히 했다.

최근에는 출판한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상상만으로도 즐겁다는 그의 말에서 모두가 한바탕 웃었다. 장어요리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전국은 물론 뉴욕과 상하이, 도쿄에 지점을 개설하겠다는 모험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는 이가 없었다.

JY 進容電力株式會社
(電氣工事, 消防工事, 工事裝備賃貸)
理事長 朴 魯 慶
(總同窓會 副會長)
푸른環境株式會社
(建設木材廢棄物 處理 專門業體)
[골프장, 도로공사, 공단조성공사, 벌목, 제근 등]
[사업장 임목폐기물 수거운반, 처리]
[폐기물재활용(우드칩, 톱밥생산 판매)]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8-1번지
대표전화 055)945-1236~7/FAX 945-1238
휴대폰 : 010-6761-1236